

분당 신도시 기준용적률 315%, 5.9만호 추가공급 기반 마련

-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 9.6만호 대상, 年8~9천호(10% 수준)씩 순차적 정비계획 수립
-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, 자족기능 갖춘 성장거점으로 조성

□ 성남시(시장 신상진)는 10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(안)을 공개하고, 주민공람을 시작한다.

* [기본계획 수립절차] 주민공람(9.10~10.10) → 지방의회 의견조회 →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, 경기도 승인

□ 분당 신도시는 “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”를 비전(Vision)으로,

○ ①첨단과 혁신의 도시(“4차산업 특별도시 조성”)· ②특화 도시(“역세권 등 특화전략 구축”)· ③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(“세대 공존의 Aging in Community 도시 조성”)라는 세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.

○ 분당 신도시의 기준용적률*은 315%** (現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용적률은 174%)이며, 이를 통해 주택 5.9만호 추가 공급(前 23만명 9.6만호→ 後 35만명 15.5만호) 기반이 마련된다.

*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고,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

** 세부 용도별로 아파트 326%, 연립빌라·단독주택 250%를 적용

□ 기본계획(안)에 따라 성남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9.6만호에 대해 올해 선도지구 8천호(+ 1~2개 구역)를 시작으로 '35년까지 매년 9.6만호의 10% 수준인 8~9천호를 선정하는 등 매년 일정 물량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또한, 성남시는 선제적으로 광역교통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여 수요예측 기반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고, 광역교통축별 혼잡 수준을 고려한 혼잡 완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,

-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*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계획 연구용역('23.12~'24.12, 한국교통연구원·서울시립대)

○ 특히, 성남시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(중심지구 정비형)으로 지정하여 첨단산업·기술이 결합된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며,

- 국토부는 오리역세권 일대 정비를 통한 자족기능 확보가 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모범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“8월 14일 중동·산본, 30일 평촌에 이어 금번 분당 신도시 기본계획(안)이 공개된 바, 국토부는 광역교통, 금융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”이며,

○ “성남 분당 이후 기본계획(안) 공개 예정인 고양 일산을 포함하여,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기대 (044-201-4919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현 (044-201-4921)
			사무관	조익희 (044-201-4924)
			사무관	노경우 (044-201-4928)
담당 부서	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	책임자	과 장	유지만 (044-201-4920)
		담당자	사무관	임채현 (044-201-4926)
			사무관	이용관 (044-201-4957)
			사무관	신성일 (044-201-4940)
담당 부서	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	책임자	과 장	김인현 (031-729-3340)
		담당자	팀 장	강대성 (031-729-4511)
		담당자	주무관	박일수 (031-729-4513)

1 비전과 목표

Vision

“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”

계획의 목표

- ❖ 통합정비로 정주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매력있는 분당신도시 조성
- ❖ 변화된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는 도시공간구조 개편



2 공간구조 개선 계획

1 역세권별 도시기능 배분

- 역세권별 중심기능 배분 등 용도 재검토
 - 야탑역 : 판교테크노밸리 및 야탑 R&D밸리 연계
 - 판교역 ~ 성남역 ~ 이매역 : 수도권 환승거점 육성
 - 서현역 ~ 수내역 : 상권 및 산업 기반의 분당 중심 거점
 - 미금역·오리역 :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자족 기능 강화

2 녹지축 연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

- 판교신도시 및 주변 산림과 녹지축 연계
- 율동공원 ~ 중앙공원 ~ 정자공원 등 녹지거점 조성

3 안전한 보행축 형성

-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및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축 형성
- 역세권, 녹지축으로 이어지는 보행로 계획

